금주의 법구–〈선생자경〉
나쁜 벗이란 거짓말을 하며
체면만을 좋아하며
삿된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0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18일)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출범 이후 첫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종단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자리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 내부 혁신동력 기틀 마련과 외부 사회평화 정착에 힘쓸 것을 천명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원행 스님 "종단 혁신동력 기틀 마련"

1월 16일 첫 신년기자회견… 백년대계본부 재편

소통 · 화합 중심 7대 과제
종단안팎 과제 두루 설정

'화합과 혁신위원회' 구성
숲 종도 목소리 취합하고
남북불교교류 · 연대 통해
사회평화 정착 기여 계획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새해, 종단 혁신동력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진한다. 백년대계본부를 재편해 본격적인 '싱크 탱크(Think tank)'를 가동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남북불교교류와 소외계층 지원으로 사회 평화 정착을 주도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종무기조와 종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먼저 종책기조는 지난해 9월 말 출범하면서 내세운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겠습니다'를 유지했다. 하지만 7대 종책과제로 △소통과 화합 △혁신 △승려복지 △교구중심 △문화창달 △교육과 포교 △사회 등 전방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사안별 종도 의견 취합

이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사안은 종단 혁신을 위한 밑작업인 백년대계본부 재편이다. 원행 스님은 백년대계본부가 단순히 종무활동을 펼치는 조직이 아닌 확실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원회를 꾸렸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화합과 혁신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 '백만결집원력위원회'다.

화합혁신위는 승납 · 출재가에 관계없이 모든 종도의 목소리를 취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단 지도자급 스님과 재가자들로 구성해 온 ·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 각종 사안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을 정리한다. 이를 간담회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거쳐 종단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목적이다. 문화창달위는 불교전통문화 개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백만원력위는 신행혁신과 보시문화 정착을 추진한다.

원행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25년 전 우리 종단은 종단개혁불사를 통해 운영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했다. 중앙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켰고, 종무행정을 체계화시켜 변화와 발전을 이뤘다"면서 "그러나 최근 종단서 일어난 갈등 상황은 1994년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크게 한 걸음 내딛어야 함을 일깨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은 "제36대 집행부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깃발을 들고자 한다. 백년대계본부를 미래불교 전략기지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천명했다.

원행 스님의 이 같은 발표는 기존 백년대계본부가 종단의 미래과제를 도출하는데 미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아젠다 설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조계종은 세 위원회의 출범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인사들이 기존 백년대계본부서 활동해온 인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종도들의 기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內 봉축점등식 추진

조계종이 백년대계본부 재편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나선다면 대외적으로는 남북교류 확대를 중심으로 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양시내 봉축점등식 추진이다. 이는 이전 집행부에서 볼 수 없던 사업계획으로, 성사 시 불교계 남북교류의 전환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법사 파견과 시설건립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남과 북이 함께하는 연등축제 및 봉축법요식 봉행에도 힘을 쏟는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사찰 주위에 나무를 심어 산림을 회복하는 사업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승려복지제도 혁신 모색

또한 조계종은 출가수행자들의 안정적인 수행을 돕는 승려복지제도 확대에 나선다. 원행 스님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전액 지원을 최우선 종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지원하던 국민연금보험료 1만8000원을 3만6000원으로 2배 늘렸다. 이는 스님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에 해당한다. 또한 승려복지 기초조사 및 전산화, 승보공양 복지사 제도 도입, 정밀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중증요양시설 건립도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원행 스님은 "종단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스님들의 의식주 문제 등 삶의 기본조건을 안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과 전법의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스님들의 복지문제를 하루아침에 해소하긴 어렵지만 조계종 승려로서 자부심을 갖고 정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관련기사 A3〉


고유환 · 김상겸 · 김상인 · 박명호 · 송일호 · 유국현 · 윤성이 · 이상일 · 이은기 · 조의연 · 허남결 〈등록후보 가나다 순〉

동국대 총장 선거 11명 '출사표' 역대 최다 후보 등록 기록

1월 16일 접수 마감… 내부 9명 · 외부 2명 접수해

18일 총추위서 대상자 결정
22 · 28일 소견 발표 · 토론회
1월 30일 최종 후보 선정
2월 7 · 8일경 이사회서 선출

동국대 제19대 총장 후보로 11명이 등록했다. 총장 후보에 11명이 등록한 것은 역대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총장 후보를 접수한 결과 총 11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인사를 살펴보면 내부 인사 9명, 외부 인사 2명으로 확인됐다. 내부 인사로는 고유환(북한학) · 김상겸(법학과) · 박명호(정치외교학) · 송일호(경제학과) · 유국현(화학과) · 윤성이(식품산업관리학과) · 이상일(건설환경공학과) · 조의연(영어영문학과) · 허남결(불교학부) 교수가 등록했다. 외부인사로는 김상인 前 대덕대 총장,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상 가나다 순)

후보군으로 평가받았던 이윤호(경찰사법대학장) · 정창근(국제통상학과) · 홍승기(국제통상학과) 교수 등은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반면 외부인사를 포함해 고유환 · 김상겸 교수는 새로운 후보 대상군으로 떠올랐다.

또한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에 따라 최종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외부인사 1인을 반드시 추천토록 돼 있어 내부인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국대 제19대 총장 후보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총장 선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장 동국대 총추위는 1월 18일 지원자 자격심사 · 최종 후보자 수를 의결한다.

1월 22일에는 로터스 홀에서 후보 대상자 소견 발표가 있으며, 1월 28일에는 공개토론회가 동국대 총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이들 소견 발표와 공개토론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18일 총추위 · 22일 소견발표 차주 상보〉**

이후 총추위는 1월 30일 전체회의서 최종 후보자 3~5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동국대 이사회는 2월 7, 8일 경 열리는 회의에서 총추위가 추천한 후보 중 제19대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6주연속
베스트셀러
종합1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혜가생기는 책!"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 지음 | 272쪽 | 15,000원

설날 선물은 혜민 스님 책과 함께!

독자들의 이유 있는 선택! 요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진짜 비싼 심리 상담 받는 느낌이었다. @holina••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보다 내공이 더 강해진 느낌이었다. 교보문고 독자 wave•• ★혜민 스님 책은 읽고 있으면 일단 마음이 평온해지고 위안이 된다. 예스24 독자 smy•• ★엄마에게 선물해드렸는데, 쉽게 읽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하시네요. 알라딘 독자 강•연★책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어떠한 눈물인지는 몰라도 그냥 눈물이 나요. 감동을 주는 언어들이 있다는 데 감사합니다. 교보문고 독자 ka••5711

법보시 및 대량구매 문의 031) 955-9790



수오서재